

경북 성주지역의 짚 관련 어휘 연구

홍기옥*

[초 록]

벼의 이삭을 떨어낸 ‘짚’은 쌀농사의 부산물로 전통문화에서 주저, 경작 등 우리민족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짚을 이용해 지붕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 신였으며, 명석, 자리를 만들어 깔았으며, 망태기를 매고 다녔다. 생활 전반에서 짚은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었고, 이는 짚과 관련된 생활어휘가 많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해 많은 짚과 관련된 생활 용품은 다른 재료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관련 어휘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짚 관련 어휘가 소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농경사회의 산물인 짚과 관련된 어휘를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 정리하여 짚 관련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어휘의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짚 관련 어휘 정리는 한국의 농경문화와 생활문화와 관련된 어휘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초빙교수

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 성주지역의 짚 관련 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공서의 추천으로 지역 토박이면서 현재까지 짚공예 활동으로 하고 있는 제보자를 3인 추천받아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문헌조사, 1·2차 현장조사, 보충조사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 범주를 질문지로 작성하고,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통해 밀착조사를 실시하였다. 어휘 조사뿐 아니라 해당어휘의 음성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함께 조사하여 DB구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짚 관련 어휘 조사 범주는 짚과 관련된 상위 명칭과 짚으로 만든 용품의 용도에 따라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누었다. 대분류로는 ‘농사용품, 사육용품, 생활용품, 주거용품, 행사용품’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중분류는 ‘개념, 건조, 도구, 먹이, 보관, 운반, 의복, 이동, 이방, 장례, 재료, 파종, 놀이, 부분명칭’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145개 어휘자료, 제보자 강재희 씨의 생애구술, 어휘 수집파일, 음성파일 분절 파일 등 녹음자료, 생애구술과 어휘 수집파일의 전사자료, 짚공예품, 도구, 제작과정 등의 사진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145개의 어휘자료 중 73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도 있었다. 또한 짚 관련 어휘를 포함한 관용표현이나 속담표현도 수집할 수 있었다.

1.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

벼, 보리, 밀, 조 따위의 이삭을 떨어낸 줄기와 잎을 말하는 짚은 농경 사회를 대표하는 산물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벧짚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이었다. 농가에서는 그 해에 첫 수확한 곡식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 짚으로 만든 ‘씨오쟁이’에 보관하였다. 새로 담근 장을 담은 독은 짚으로 둘러쳤고, 악귀와 질병, 액을 막기 위한 금줄이나 치성, 생산, 신성함의 표시 등이 목적인 신앙의 대상물에는 항상 벧짚으

로 만든 줄을 둘러놓았다¹⁾. 또한 짚신, 가마니, 명석, 새끼줄 등을 짚으로 만들어 생활용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농사의 부산물인 짚은 이처럼 우리 전통사회에서 분리할 수 없는 소중한 재료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짚을 사용해 만든 물품들은 하나 둘 사라졌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아닌 ‘공예품’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 사회의 일상생활에 담겨있던 짚이 공예품으로 변화함으로써 인해 예부터 이어져 온 짚 문화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조사는 사라져 가는 짚 관련 어휘를 조사, 정리하여 관련 어휘의 DB 구축을 위해 경북 성주 지역의 짚 생활 어휘를 수집하였다²⁾. 문헌조사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하였는데 조사 범주는 크게 짚 관련 명칭(전체, 부분, 재료별, 기타), 용품 관련 어휘(농사용품, 사육용품, 생활용품, 주거용품, 행사용품, 기타), 용품 제작·보수 과정 관련 어휘(기초 작업, 용품 제작, 용품 보수), 짚 관련 관용·속담 표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관련 어휘를 조사,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³⁾.

현장 조사는 경북 성주 지역 토박이로 현재에도 짚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제보자를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소개받을 수 있었다. 총 3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문헌조사, 1·2차 현장 조사, 3차 보충조사의 방법으로 관련 어휘를 수집, 정리하였다. 어휘 뿐 아니라 제보자가 만든 짚 용품은 물론 짚 용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제작에 필요한 도구 등도 사진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다. 특히 짚신 삼는

1) 동아출판사(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2』, p. 660 참조.

2)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 연구 내용 중 필자가 조사한 생활어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립국어원(2007) 연구 참조.

3) 짚 생활어휘에 관한 전체 조사 내용은 <표 1>의 내용과 같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체 내용 중 짚 명칭, 생활 관련 어휘(농사용품, 사육용품,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어휘를 다루었고, 나머지 조사어휘는 다음의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표 1〉 조사 내용

범주	어휘 항목	
짚 관련 명칭	전체, 부분, 재료별, 기타	
용품 관련 어휘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농사용품, 사육용품, 생활용품, 주거용품, 행사용품, 기타	개념, 건조, 도구, 먹이, 보관, 운반, 의복, 이동, 이방 ⁴⁾ , 장례, 재료, 파종, 놀이, 부분명칭, 기타
용품 제작·보수 과정 관련 어휘	기초 작업(도구, 행위), 용품 제작(도구, 행위, 금기, 속설), 용품 보수(도구, 재료, 행위)	
관용·속담 표현	범주별 관용·속담 표현	

과정은 제보자에게 부탁하여 직접 시연하게 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정리하였다.

제보자 강재희 씨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충기가 있었다. 귀가 어두운 편이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고, 발음도 정확한 편이라 제보자로 선정했다. 제보자 김정희 씨는 이 지역에서 3대째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이다. 강재희 씨와 마찬가지로 손재주가 뛰어나 지팡이, 목침 등을 손수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짚공예 수업을 나가고 있을 정도로 활동적이어서 제보자로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 김정희 씨의 친구인 이덕기 씨도 보조제보자로 참여하였는데, 김정희 씨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 주어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

현장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으로 관련 어휘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어휘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하였고, 비디오카메라와 녹음기를 사용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수집한 어휘는 Transcriber 프로그램, Excel 프로그램,

4) 질병, 재액 따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하는 행위.

〈표 2〉 제보자⁵⁾

강재희(1926년생)	김정희(1928년생)	이덕기(1928년생)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Protege-5.3.0-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2. 조사된 짚 생활어휘

2.1. 상위 명칭 짚 관련 어휘

2.1.1. 조사 어형

짚 관련 용품의 재료인 상위 명칭인 ‘짚’과 관련된 어휘는 짚 자체를 말하는 명칭, 짚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칭, 짚의 상태에 따른 명칭, 짚의 부분 명칭, 짚을 끈 짚의 1차적인 가공물인 새끼와 관련된 명칭 등으로 상위 명칭 짚에 대한 어휘 분화형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내용을 표준어와 대응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상위 명칭 ‘짚’(벼, 보리, 밀, 조 따위의 이삭을 떨어낸 줄기와 잎)
 - 수집 어형: 짚/집/지푸라기/지푸래이⁶⁾

5) 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보자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현재 짚공예를 하고 있는 제보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 토박이로 오랫동안 짚공예를 하고 있는 제보자 3인을 중심으로 짚이 있게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나) 단위 명칭 ‘지푸라기’(날날의 짚, 또는 부서진 짚의 부스러기)
 - 수집 어형: 지푸라기/지푸래이/짚불
- 다) 상태에 따른 명칭
 - ① 짚북데기(짚이 함부로 뒤섞여서 엉클어진 뭉텅이)
 - 수집 어형: 짚쑤세
 - ② 새째기(짚의 껍질을 벗긴 줄기)
 - 수집 어형: 짚모개미7)
- 라) 부분 명칭 ‘짚핵기’(짚의 가장 위 마디, 짚에서 이삭이 달린 줄기)
 - 수집 어형: 짚패기/짚호깨이
- 마) 짚을 끈 짚 용품의 초기 형태 ‘새끼’
 - ① 새끼(짚을 줄처럼 꼬아 만든 것)
 - 수집 어형: 새개이/새끼때이, 짚바
 - ② 짚나라미(새끼에서 떨어지는 너더분한 부스러기)
 - 수집 어형: 짚내끼

2.1.2. 어형 분석

이상에서와 같이 상위 명칭 ‘짚’과 관련된 어휘는 다양한 분화형을 보인다. 상위 명칭을 단위 명칭인 ‘지푸라기’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지푸라기’의 수집 어형 중 ‘지푸래이’는 1모음 역행동화 현상을 거친 후 어중 ‘-g-’가 탈락한 어형이며, ‘짚불’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짚을 태운 불’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른 형태이다. ‘짚불’을 ‘짚 + -불’의 어형으로 본다면, 이 어형은 ‘덤불, 검불’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불’이라는 단어, 접사가 사용된 것이

-
- 6) 수집 어형을 정리할 때 해당 어휘의 표준어형과 의미를 정리한 후 지역에서 수집 어형을 제시하였다. 해당 어휘의 표준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수집어형을 바로 제시하고, 의미 풀이를 더하였다. 그리고 한 어휘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형을 /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 7)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짚에서 이삭이 달린 부분을 ‘짚핵기’라 정의하고 있고, 이 짚핵기의 방언형에 ‘짚모개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조사지역에서는 ‘짚모개미’를 ‘짚의 껍질을 벗긴 줄기’를 이르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아니라 유사 형태, 의미의 단어에서 동일 어형 ‘-붙’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집 어형인 ‘짚쑤세, 짚모개미, 짚패기, 짚호깨이, 짚바, 짚내끼’는 ‘짚 + 명사형’의 합성어형으로 나타난다. 상위 명칭인 ‘짚’이 단어의 왼쪽에 나타나며 오른쪽에 구체적인 대상이 나타난다. 이는 종속합성어의 유형으로 ‘수식어 + 피수식어’ 형태에서 단어 왼쪽에 위치한 ‘짚’이 수식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수집 어형은 1음절에서 4음절까지 단일어와 합성어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어형은 모두 고유어 어종으로 피수식어는 지역의 방언어형이 사용되었다⁸⁾. 그리고 수집 합성어의 구성은 모두 핵어를 포함한 내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2.2. 농사용품 관련 어휘⁹⁾

2.2.1. 조사 어형

우리 선조들에게 농사를 짓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었다. 농사의 부산물로 나온 짚을 이용한 용품으로 다시 농사를 짓거나 농업 활동의 결과물을 정리, 보관, 관리하는 역할로 이용하였다. 농사용품 관련 어휘는 용도에 따라서 정리하였는데 농산물을 담아서 보관·이동용도, 농

8) 실제로 지역에서 사용하는 생활 어휘는 고유어 비중이 높다. 이는 정호성의 연구(2000, p. 63)에서 나타난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내역인 고유어 25.55%, 한자어 56.96%, 혼종어 12.24% 비율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지룡(2002)의 ‘현대 국어 어휘의 사용 실태와 조어론적 특성’에서 나타난 현대 국어 어휘의 사용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9) 어휘에 따라 농사용품, 사육용품, 생활용품, 주거용품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소에게 사용하는 용품 중 농사일에 소를 부리기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농사용품에 포함하였으며, 소를 기르는 데 사용하는 용품은 사육용품에 포함하였고, ‘빌가리통’(병아리통)은 사육용품에 ‘기랄통’(달걀꾸러미)는 생활용품에 포함하였다. 이처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어휘도 있음을 밝혀둔다.

산물 정리 위한 용도, 농산물 관리를 위한 용도,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용품 관련 어휘로 어휘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 농산물 보관·이동 용도

- ① 섬(곡물이나 사료 등을 갈무리하는 데에 쓰는 짚으로 된 그릇으로 곡식을 세는 단위)
 - 수집 어형: 섬
 - 하위 어형: 쌀섬, 숯섬
- ② 가마니(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을 돛자리 치듯이 쳐서 만든 용기)
 - 수집 어형: 가마이, 가망이, 가마이때기, 가망이때기, 짚가망
 - 하위 어형: 쌀가마이, 소금가마이, 숯가마이
- ③ 오쟁이(섬보다 조금 작은 것)
 - 수집 어형: 오쟁이, 오장치, 두꾸마리, 두루미¹⁰⁾
 - 하위 어형: 씨오쟁이, 종자오쟁이
- ④ 옹구(농산물, 거름, 모래와 같은 것을 나르는데 사용하는 도구)
 - 수집 어형: 길옹구, 명옹구¹¹⁾
- ⑤ 걸채(길마 위에 얹고 벧단과 같이 부피가 큰 곡식의 단이나 나무와 같은 물건을 나르는데 사용하는 도구)
 - 수집 어형: 걸채
 - 하위 어형: 두엄걸채, 명옹구
- ⑥ 망태기(물건을 담아들거나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 수집 어형: 망태기/망태

10) 두루미는 ‘섬’보다 작은 오쟁이의 지역 방언형으로도 사용되며, 농산물 보관, 이동 용도 관련 어휘 중 ⑦에서 정리한 ‘두루미’의 지역 어휘에서도 조사되었다. 제보자들에게 관련 하여 재조사하니 발음은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라 제보하였다.

11) 옹구와 걸채는 용도는 유사하나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다. 제보자들도 두 용어의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하위 어형에 ‘명옹구’가 옹구와 걸채 항목에서 동시에 조사되었다.

- 하위 어형: 씨앗망태/씨망태, 풀망태/꼴망태/깎망태, 흘치기망태
- ⑦ 두루미(목과 아가리는 좁고 길며, 배는 단지처럼 둥글게 부른 모양의 큰 병)
 - 수집 어형: 두루미/두리미/두루미병
 - 하위 어형: 종자두루미/쌀두루미
- ⑧ 뒤주(곡식을 그릇이나 자루에 담지 않고 그대로 갈무리하기 위한 저장고)
 - 수집어형: 뒤지/디주/두지
 - 하위 어형: 나락디주/나락두지/나락뒤지

나) 농산물 가공 용도

- ① 수집 어형: 쌀방석(쌀을 널어 말리는 데 쓰이는 방석)
- ② 명석(곡식을 널어 말리는 데 쓰는 짚으로 걸어 만든 자리)
 - 수집 어형: 덕석, 덕식이, 명식이
- ③ 태(가을철에 논밭의 새를 쫓기 위한 매끼)
 - 수집 어형: 태기/때기
 - 연어 유형: 때기 치다/태기 치다/꽤대기 치다

다) 농산물 관리 용도

- ① 허수아비(곡식을 해치는 새, 짐승 따위를 막기 위하여 막대기와 짚 따위로 만들어 논밭에 세우는 사람 모양의 물건)
 - 수집 어형: 허사비, 허새, 허새비, 허새비

라) 기타 용도

- ① 쟁거리(길마를 엮을 때에,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수집 어형: 철거기/철기이
 - 하위 어형: 앞철거리, 뒤철거리, 철거리낭기, 철거리끈/철기이끈

2.2.2. 어형 분석

농사용품 관련 어휘에서는 보관·이동 용도와 관련된 어휘가 많이 조사되었다. ‘섬, 가마니, 오쟁이, 옹구, 걸채, 망태기, 두루미, 뒤주, 명석, 태, 허수아비, 쟁거리’ 등과 관련된 지역의 생활어휘가 조사되었고, 해당 어휘와 함께 하위 범주 어형, 연어 표현을 함께 수집하였다.

가마니는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들어온 형태로 알려져 있고, 명칭도 일본어 ‘가마스’(かます)에서 온 것이라 한다¹²⁾.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 보통 섬을 사용했다고 한다¹³⁾. 모양은 가마니처럼 생겼으나 짚을 거칠게 쳐서 양끝을 안으로 우겨 넣고 꿰매었다. 가마니에 비해 많이 담을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크기가 커 운반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가마니보다 촘촘하지 않아 틈이 컸다고 한다. 곡물 외에 솥을 담은 섬을 ‘솥섬’이라고 따로 부른다. 이것은 사과꺄짜과 비슷하나 너비가 좁고 솥을 담은 뒤에는 빈 부분에는 짚을 넣어 뚜껑으로 삼는다. 섬 자체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곡물 따위가 든 것을 운반할 때에는 새끼줄을 가로 세로로 적당히 엮어매어야 한다고 한다.

‘가마니’를 지역에서는 ‘가마이, 가망이, 가마이때기, 가망이때기, 짚가망’이라고 사용한다. ‘가마니’에서 어중 자음이 탈락한 형태와 이 어형에 ‘-때기’라는 접사가 붙은 어형인 ‘가마이때기, 가망이때기’형이 나타난다. 더불어 ‘짚 + 가망’의 형태로 [재료]를 다시 어두에 붙인 어형도 조사되었다.

12) 1909년에 당시 조선통감부에서 펴낸 제3차 『한국시정연보』(韓國施政年報)에 따르면, 한 해 앞서 일본의 이른바 개량 농구로서 우리나라에 그네·풍구·낫·괭이 따위와 더불어 새끼틀 19대, 보통 가마니틀[普通製筵器] 495대, 마키노식 가마니틀[眞野式製筵器] 50대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가마니 제작의 시초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13) 섬은 ‘擔, 섬’ <농정촬요>, ‘空石’ <산림경제>, ‘俵, 섬’ <月餘農歌>, ‘蒿籬, 호천’ <농사직설> 등으로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마니’라는 어휘보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옹구는 새끼로 망태처럼 엮어 만든 농구(農具)로 가마니 두 짝을 각각 양편에 망태처럼 엮은 것과, 밑이 없이 대어 밑 부분을 졸라맬 수 있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의 길마 위에 양쪽으로 나란히 걸쳐 엮고 거름이나 쟈나무 따위를 나르는 데 쓴다. 조사된 어휘 ‘걸옹구’는 새끼를 엮어 거친 거름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만든 기구이다. 다소 촘촘하게 엮어 거름이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고 한다. ‘걸옹구’는 ‘옹구’의 하위 어휘로 거름을 실어내는 옹구인 ‘거름 + 옹구’형임을 추정할 수 있지만, 걸옹구가 소 등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길마에 걸쳐 사용하는 농기구이므로 ‘걸다 + 옹구’ 어형으로 ‘거는 옹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두엄 + 걸채’는 두엄을 싣는 걸채이고, 이의 이형태로 ‘명옹구’형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명옹구’가 ‘명 + 옹구’ 어형으로 분석은 할 수 있으나 ‘명’의 어형을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옹구가 소의 등에 설치하는 농기구이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 ‘명에’를 엮기도 하므로 ‘명에’ 어형을 활용하여 만든 어형일 수 있다.

망태는 ‘망태기’의 준말로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인데 주로 가는 새끼로 엮거나 그물처럼 떠서 성기게 만든다. 망태기에 무엇을 주되게 담는지에 따라 다양한 하위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씨앗망태/씨망태’는 물론 ‘풀망태/꼐망태/깎망태’ 등이 사용된다. ‘명사 + 망태’ 어형으로 담는 것의 이름을 ‘망태’ 앞에 붙여 단어를 만들었다. ‘씨앗망태, 씨망태, 종자망태기’는 씨앗을 담아 파종하기 쉽도록 끈을 달아 만든 그릇이다. 풀을 담는 망태는 ‘풀망태, 꼐망태, 깎망태’라 하였는데 ‘꼐/깎’은 소나 말에게 먹이는 풀을 말한다. ‘홀치기망태’라는 어휘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이는 망태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홀치기 + 망태’의 합성어형이다. 망태의 모양이 ‘홀치기¹⁴⁾’ 기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배낭이나 자루처럼 만들고 아가리에 끈을 끼어 홀쳐매게 된 물건(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림 1] 두루미

종자를 보관해 두는 두루미를 ‘종자 두루미, 두루미병’이라 한다. 두루미는 목과 아가리는 좁고 길며, 배는 단지처럼 둥글게 부른 모양의 큰 병이다. 짚으로 만든 두루미는 통풍이 잘 되어 씨앗이 상하지 않아 씨앗을 보관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짚으로 만든 종

자두루미 외에도 ‘술두루미’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술을 담는 두루미 모양의 병을 말한다. ‘종자 + 두루미’, ‘술 + 두루미’ 어형은 어휘 ‘두루미’가 들어간 합성어형으로, 앞서 언급한 망태와 관련된 어휘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담는 [용도]로 쓰이는지에 따라 이름을 붙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곡식을 담아 두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둘러막고 이엉으로 지붕을 덮은 시설을 ‘나락뒤주’라 한다. 나락을 보관하기 위해 짚으로 만든 시설물로 볼 수 있다. ‘나락’은 벼를 이르는 말이지만 다른 곡식을 담기도 한다고 한다. 지역에서는 ‘나락디주, 나락두지, 나락뒤지’라 부른다고 한다. ‘기 > |, ㅌ’로의 이중모음을 단모음화하거나 ‘ㅌ > | 로 모음교체가 일어난 어형이 사용되고 있다.

‘쌀방석’은 말 그대로 ‘쌀 + 방석’의 어형으로 쌀을 넣어 말리는 데 쓰이는 방석이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방석’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로 그 크기가 작은 느낌이 들지만 쌀방석은 한 섬의 쌀을 퍼서 널만큼 큰 형태라고 한다. 제보자들은 크기가 큰 것을 ‘쌀방석’이라고 하고,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을 ‘덕석, 덕식이’라고 불렀다. ‘덕석’은 짚을 두툼하게 엮거나, 새끼로 날을 하여 짚으로 쳐서 자리처럼 만든 물건으로 곡식을 너는 ‘명석’의 지역 방언형으로 ‘덕석, 덕식이, 명식이’라 하였다.

수집 어형 ‘태기, 태기’는 ‘태’의 방언이다. ‘태’는 가을철에 논밭의 새

를 쫓기 위한 매끼로 짚을 꼬아 만든 줄 끝에 삼, 말총, 짐승 가죽 따위를 매어 만드는데 이것을 둘러서 치면 그 끝이 휘감기게 되어 총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고, 머리는 굽고 꼬리는 가는 모양이다. 이를 ‘파대태’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사지역에서는 ‘때기, 태기’라고 하였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태’를 ‘심마니들의 은어로, 산삼을 넣는 망태기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보자들은 지역에서는 농기구 ‘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경북지역에서는 이 ‘때기/태기’를 ‘때기 치다/태기 치다/패대기 치다’라는 형태로 ‘치다’와 연어 구조로 사용하는데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내동댕이치다, 내팽겨치다, 집어 던지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짚으로 만든 용품 중에 허수아비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용품이다. 경북지역에서는 ‘허수아비’를 ‘허새비’를 포함해 ‘허사비, 허세, 허새비, 허세비’라 부른다. 허수아비라는 어형이 ‘허수 + 아비’의 합성어형으로 보면 경북지역의 ‘허사비, 허새비, 허세비, 허새비, 허새비, 허새’형은 ‘허수’에서 전접 어휘에서 모음이 탈락하고 ‘아비’가 결합했거나, ‘아비’가 ‘ㅣ 모음 역행동화’로 ‘애비’가 된 어형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북지역에서는 ‘내 : 궈’의 비변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므로 ‘-새비’형과 ‘-세비’형이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길마는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엮는 기구로, ‘깁거리’는 길마를 엮을 때에,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이다. 길마가 소의 등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쓴다. 이때 양 끝에 대는 막대를 ‘깁거리막대’라 하고 깁거리막대를 고정하기 위해 매는 줄을 ‘깁거리끈’이라 한다. 조사 지역에서는 이 깁거리를 ‘철거리, 철기이’라 하였다. ‘깁거리’, 즉 ‘철거리’의 앞부분은 ‘앞철거리’(앞 + 철거리), 뒷부분을 ‘뒤철거리’라 하였다. 이는 철거리의 하위 범주 어휘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방언검색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깁거리끈’은

이 지역에서는 ‘철거리끈/철기이끈’이라는 합성어형으로 부른다.

농사용품과 관련된 어휘는 1음절에서 5음절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가마니가 일본어 ‘가마스’(かます)에서 차용한 어휘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유어 형태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아래는 조사 어휘를 조어 구성에 따라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¹⁵⁾.

- 가) 단일어: 섬, 가마이, 가망이, 오쟁이, 오장치, 두꾸마리, 두루미, 걸채, 망태기, 망태, 두루미, 두리미, 뒤지, 디주, 두지, 태기, 때기, 철거리, 철기이
- 나) 합성어: 쌀섬, 솟섬, 짚가망, 쌀가마이, 소금가마이, 솟가마이, 씨오쟁이, 종자오쟁이, 걸옹구, 명옹구, 두엄걸채, 씨앗망태, 씨망태, 풀망태, 꿀망태, 깔망태, 훌치기망태, 두루미병, 종자두루미, 쌀두루미, 나락디주, 나락두지, 나락뒤지, 쌀방석, 허사비, 허새, 허새비, 허세비, 허째비, 허째비, 앞철거리, 뒤철거리, 철거리낭기, 철거리끈, 철기이끈
- 다) 파생어: 가마이때기, 가망이때기

수집 어형에는 합성어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모두 종속합성어 유형으로 앞에 위치한 단어가 뒤의 단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합성어형 중 앞에 위치한 수식어는 명사형으로 해당 용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며, ‘훌치기망태, 두루미병’ 어형은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한다. 피수식어는 지역의 방언어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수집된 합성어의 구성은 모두 핵어를 포함한 내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15) 조사된 어형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조어 방식을 나누어 분류하였지만 실제 그 어원을 알 수 없는 어원은 조어 방식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2.3. 사육용품

2.2.1. 조사 어형

소, 돼지, 닭과 같은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사육용품으로도 짚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 중 소와 관련된 용품이 많고, 이와 관련된 어휘도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소는 농사에 유용한 동물이고, 그러므로 집안의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다. 소는 중요한 가축이며 활용도가 크므로 관련 어휘장이 발달해 있는 것이다. 수집 어휘 중 크게 소와 닭과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였다.

소치레는 소를 잘 부리기 위하여 코뚜레·목찍게·고삐·방울 등의 장식물을 이용한 치장(治粧)을 말하는데 소를 농사에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치장으로 소치레는 소에게는 일종의 통과례라 할 수 있다. 이 소치레를 하는 과정에는 짚을 많이 이용하며, 소를 사육하면서도 짚을 활용하여 만든 용품을 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가) 소 관련 짚 용품

- ① 목사리(곡물이나 사료 등을 갈무리하는 데에 쓰는 짚으로 된 그릇으로 곡식을 세는 단위)
 - 수집 어형: 목사리/ 맥사리
 - 1차 하위 어형: 윗목사리, 아랫목사리
 - 2차 하위 어형: 윗목사리 - 목땃개, 목닥기
아랫목사리 - 목걸이, 턱걸이
- ② 부리망(소가 곡식이나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소의 주둥이에 씌우는 물건)
 - 수집 어형: 소망
- ③ 소굴레(소부리망과 굴레를 연결하는 새끼줄, 혹은 소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엮어매는 줄)
 - 수집 어형: 소어닝기

- ④ 쇠덕석(추울 때에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멍석)
 - 수집 어형: 소방석/쇠덕석이/덕석이
 - 하위 어형: 뜸/속방석(쇠덕석 아래에 한 겹 더 덮어주는 짚멍석)
 - ⑤ 허리띠
 - 수집 어형: 배채/복디(쇠덕석을 입히고, 덕석이 흐르지 않도록 허리부분을 감는 데 쓰이는 도구)
 - ⑥ 걸언치(소 등에 엮는 안장의 양쪽에 붙인 짚방석)
 - 수집 어형: 질매어치
 - ⑦ 수집 어형: 마구주름(외양간의 창을 가리는 데 쓰이는 발)
- 나) 기타 동물 관련 짚 용품
- ① 닭어리(둥우리로 된 닭의 보금자리)
 - 수집 어형: 어리, 달구통, 빌가리통
 - ② 별통땃개(별통의 온도 유지 등을 목적으로 별통을 덮는 덮개)
 - 수집 어형: 별통땃개/ 별기땃개

2.2.2. 어형 분석

사육용품 관련 어휘에서는 소와 관련된 어휘가 많이 조사되었다. 농사에 소를 잘 부리기 위한 소치레 관련 용품, 소를 보살피기 위한 용품 등이 있으며, 사육의 대상이 된 닭, 벌과 관련된 어휘도 조사되었다. ‘목사리, 부리망, 소굴레, 쇠덕석, 허리띠, 걸언치, 마구주름, 닭어리, 별통땃개’ 등과 관련된 지역의 생활어휘가 조사되었고, 해당 어휘와 함께 하위 범주 어형을 함께 수집하였다.

송아지는 생후 4~5개월까지는 농아먹이지만 풀을 뜯고 먹이를 찾아 먹을 줄 알면, ‘목사리’를 하여 고삐를 매는데 지역에서는 ‘맥사리’라 하기도 한다. 목사리는 짚으로, 머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목에 두른다. 목사리는 윗목사리와 아랫목사리로 구분하는데 목땃개, 목닥기는 윗목사리라 하고 목걸이, 턱걸이는 아랫목사리라 하고, 짚을 촘촘히 꼬아 만든다고 한다.

‘부리망’은 소의 주둥이에 씌우는 물건으로 가는 새끼로 그물같이 엮어서 만든다. 경북지역에는 ‘꺼래기, 머구리, 소꺼러지, 소머구리, 소머거리, 소멍, 회거리, 흥어리’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조사 지역에서는 ‘소망’이라 하였다. 이는 ‘소 + 멍’의 어형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멍’은 ‘그물처럼 만들어 가려 두거나 치거나 하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망’에서 유래한 어형으로 보인다. 제보자들도 ‘망처럼 입에 씌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으므로 그 모양, 기능에 따라 ‘망’이라는 어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어닝기’는 소부리망과 굴레를 연결하는 새끼줄, 혹은 소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엮어매는 줄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지역에서는 ‘소굴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소부리망과 굴레를 연결하는 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소 + 어닝기’의 합성어형으로 ‘어닝기’는 ‘굴레’의 방언형이다.

‘쇠덕석’은 추울 때에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멍석이다. 사람은 발이 따듯해야 하고, 개는 입이, 소는 등이 따듯해야 잘 자고, 건강히 자란다고 한다. ‘쇠덕석’을 지역에서는 ‘소방석, 쇠덕석이, 덕석이’이라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방석의 개념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형이다. 이들 어형은 ‘소 + 방석, 쇠 + 덕석이’형의 합성어형이다. 소방석, 쇠덕석 아래에 한 겹 더 덮어주는 짚으로 만든 멍석을 ‘속방석, 뚝’이라고 한다. 소방석과 ‘속방석’은 어휘의 구성이 동일하다.

‘배채, 북디’는 소에게 쇠덕석을 입히고, 덕석이 흐르지 않도록 허리부분을 감는 데 쓰이는 도구로 짚을 부드럽게 하여 엮어 만들었다고 한다. 소에게는 일종의 허리띠인 셈이다. 어형의 어원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배채’는 허리띠가 소의 허리, 배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므로 ‘배 + 채(우)다’어형의 합성어형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어원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제보자의 ‘배에 채우니까 배채지’라는 설명에서 유

추할 수 있다.

‘질매어치’는 ‘걸언치’의 지역방언형이다. 걸언치는 소 등에 엮는 안장의 양쪽에 붙인 짚방석이다. 안장에 소 등이 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장의 양쪽에 보드라운 짚으로 만든 방석을 대어 주었다.

외양간은 소를 사육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도 소들이 편안하게 먹고, 쉬고, 잘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외양간의 평면구조는 대체로 두 면은 막히고, 한 면은 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짚 등으로 가렸으며, 다른 한 면은 개방하여 이곳에 통나무로 만든 구유를 놓아 먹이를 줄 수 있게 하였다. 바닥은 흙바닥이며, 이 위에 짚 등을 깔아 보온과 위생에 도움을 주었다. 이 짚은 두엄이라 하는데 오물로 더러워지면 거름이나 땀감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외양간의 창을 가리는 데 쓰이는 발을 지역에서는 ‘마구주름’이라 하였는데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마구간은 ‘말을 기르는 공간’이지만 경상도에서는 ‘외양간’을 ‘에양간, 오양간, 이양간, 마구간’으로 지칭하고 있고, 방언형에 ‘마구간’이라는 어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구주름’이라는 어형이 ‘마구 + 주름’이 합성어형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달구통’은 ‘닭어리’의 방언이다. 닭어리는 둥우리로 된 닭의 보금자리로, 닭을 기르기 위하여 짚이나 채를 엮어 만든 물건이다. 원통형, 상자형 따위의 여러 형태가 있다. 경상도지역에서는 ‘닭’을 ‘달구, 다리’라 하는데 ‘달구통’은 ‘달구(닭) + 통’의 합성어형임을 알 수 있다. 빌가리는 ‘병아리’의 경북방언이다. 즉 빌가리통은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 만든 물건이다. 새장 모양으로 만들고 앞쪽을 터서 병아리가 들락날락할 수 있게 만든다. 달구통과 빌가리통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양봉을 할 때에도 짚은 유용한 사육 재료로 쓰이는데 벌통 속의 온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짚을 엮어 덮는 ‘벌통덮개’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를 ‘벌통덮개, 벌기덮개’라 하였다. 이는 ‘벌통/벌기 + 덮개’의 합성어형

이다.

사육용품과 관련된 어휘는 1음절에서 5음절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조사 어휘는 모두 고유어 형태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래는 어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조사 어휘를 조어 구성에 따라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가) 단일어: 어리

나) 합성어: 윗목사리, 아랫목사리, 목땃개, 목걸이, 턱걸이, 소멍, 소어닝기, 소방석, 쇠덕식이, 속방석, 배채, 마구주름, 달구통, 빌가리통, 벌통땃개, 벌기땃개

다) 파생어: 목사리, 맥사리, 덕식이

수집 어형에는 합성어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모두 종속합성어 유형으로 앞에 위치한 단어가 뒤의 단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합성어형 중 앞에 위치한 수식어는 명사형으로 해당 용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에는 지역의 방언어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수집된 합성어의 구성은 모두 핵어를 포함한 내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2.4. 생활용품

2.4.1. 조사 어형

짚으로 만든 생활용품에 관련된 어휘는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이 분화되어 나타난 어휘는 ‘짚신¹⁶⁾’과 관련된 어휘로, 짚신이 일

16) 옛 문헌에 의하면 『통전』(通典) 변방문(邊防門) 동이(東夷) 마한조(馬韓條)에 ‘초리’(草履)가 나오고, 『진서』(晉書) 사이전(四夷傳) 마한조에 ‘초교’(草鞮)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삼국시대부터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초리’(草履)는 ‘초’(草) + ‘리’(履)의 합성어형이며, 우리나라에서 사용

반 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의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짚신’과 관련된 어휘는 짚신의 부분 명칭, 짚신 만드는 도구, 짚신 보관 등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짚신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짚신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그 과정을 간단히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짚신을 삼기 위해서는 먼저 짚으로 새끼를 꼬아야 한다. 네 줄로 날을 하고, 짚으로 엮어 발바닥 크기로 만들어 바닥을 삼는다. 그 다음에 양쪽 가장자리에 짚을 꼬아 충을 만들고, 뒤는 날을 하나로 모아 놓는다. 다시 두 줄로 새끼를 꼬아 짚으로 감아 올려 울을 하고, 가는 새끼로 충을 꿰어 두르면 짚신이 완성된다.

짚신 관련 어휘는 ‘짚신’ 자체를 나타내는 명칭, 짚신의 부분 명칭, 짚신을 만드는 도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짚신 관련 어휘

① 짚신 명칭

- 수집 어형: 짚신/짚시개/짚시기

② 운두(신 따위의 돌레나 높이)

- 수집 어형: 겹기

- 하위 어형: 앞겹기, 뒷겹기

③ 엄지충(짚신이나 미투리의 맨 앞 양편으로 굽게 박은 날날의 울)

- 수집 어형: 충대/ 신충대/ 앞충

④ 돌기충(짚신이나 미투리의 허리 양편에 엄지충을 당기어 맨 굽은 충)

- 수집 어형: 돌개충/ 눈겹기

⑤ 뒤축(발 뒤쪽의 둥그런 부분 가운데 맨 뒤쪽의 두둑하게 나온

한 신발 중 목이 없이 고무신같이 생긴 것을 이(履)라고 하므로, 초리는 풀을 재료로 한 목이 없는 신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재료와 신발의 형태를 반영한 명칭이며, 짚신과 유사한 신발로 짚신의 기원으로 보았다.

부분)

- 수집 어형: 디치기

- ⑥ 수집 어형: 신골망태(짚신을 만드는 신골을 보관하는 망태)
- ⑦ 수집 어형: 신골망치/신빵매이(짚신의 모양을 곱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망치)
- ⑧ 수집 어형: 신총꼬쟁이/총대꽃이(짚신의 신총을 연결할 때, 새끼가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 신총의 구멍을 넓히는데 쓰이는 도구)

나) 보관·이동 생활 용품 관련 어휘

- ① 달갈통/계란통(달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짚으로 만든 용품)
 - 수집 어형: 닭알통/ 기달통
- ② 둥구미(짚으로 둥글고 율이 깊게 걸어 만든 그릇)
 - 수집 어형: 둥구매기
- ③ 소구리(대나 싸리, 짚으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 수집 어형: 소구리
- ④ 수집 어형: 연장꽃이(짚을 엮어 날카로운 연장을 꽃을 수 있게 만든 물건)

다) 기타 생활 용품 관련 어휘

- ① 금줄(부정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
 - 수집 어형: 금구줄
- ② 수집 어형: 구두신(짚으로 둥글고 율을 깊게 걸어 장화처럼 만든 신)
- ③ 도롱이(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 수집 어형: 도리이
- ④ 김치갓(짚을 엮어 갓처럼 만들어 땅에 묻은 김칫독 위에 걸쳐 두는 물건)
 - 수집 어형: 짐치갓
- ⑤ 수집 어형: 짚공(짚을 엮어 돌레를 감아 만든 공)

2.4.2. 어형 분석

생활용품 관련 어휘는 ‘짚신, 운두, 엄지총, 돌기총, 뒤축, 신골망태, 신골망치, 신총꼬쟁이, 달갈통, 둥구미, 소쿠리, 연장꽃이, 금줄, 도롱이, 김치갓, 짚공’ 등과 관련된 지역의 생활어휘가 조사되었고, 해당 어휘와 함께 하위 범주 어형을 함께 수집하였다.

지역에서는 ‘짚신’을 ‘짚시개, 짚시기’라 하는데 이는 ‘짚 + -시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짚’ 어형에 ‘-시개’라는 접사가 결합된 어형으로 이는 다른 경북방언에도 확인할 수 있다. ‘가시개(가위), 귀쭈시개(귀이개), 불쏘시개(부손), 짚수시개(짚수세미)’ 등의 경북방언형에서도 접사 ‘-시개’가 결합된 어형이 나타난다.

‘갱기’는 짚신의 앞뒤 운두를 이르는 말로 짚신의 앞쪽 운두를 ‘앞갱기’, 뒤쪽을 ‘뒷갱기’라 하였다. ‘뒷갱기’라는 어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도 수록되어 있으나 그 의미를 ‘침 껍질이나 형겔 따위로 짚신이나 미투리의 도갱이를 감아서 씌. 또는 그 재료’라 밝히고 있어 조사된 어휘와는 의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엄지총을 지역에서는 ‘총대, 혹은 신총대, 앞총’이라 한다. ‘짚신이나 미투리 따위의 앞쪽의 양편쪽으로 운두를 이루는 낱낱의 신울’을 ‘총’이라 하므로 ‘총대, 신총대, 앞총’이 ‘총’이라는 어휘와 연관이 있음을 알



[그림 2] 앞갱기



[그림 3] 뒷갱기

수 있는데 ‘앞총’은 단어 그대로 ‘앞 + 총’의 어형으로 ‘앞에 있는 총’이라는 의미로 ‘엄지총’의 의미와 같다. ‘총대’와 ‘신총대’는 ‘총 + 대’, ‘신 + 총 + 대’의 어형으로 ‘대’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엄지총이 짚신을 삼는, 가장 앞에 있는 큰 총이고, 두르는 띠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띠 모양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대’가 붙은 어형이라 추정하고 있다.

돌기총을 지역에서는 ‘눈쟁기, 돌개총’이라 하였다. ‘돌개총’은 ‘돌기총’의 모음 교체형으로, 돌기총이 ‘돌기 + 총’의 형태로 짚신의 옆 부분을 잡아주는 큰 총이라면 여기에 사용되는 ‘돌기’에 해당되는 지역 어휘에서 ‘눈, 돌개’는 모양이나 위치를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다. 제보자들에게 보충조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다.



[그림 4] 총대/신총대



[그림 5] 눈쟁기/돌개총



[그림 6] 디치기

짚신의 ‘뒤축’을 ‘디치기’라 하였는데 이는 짚신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 뒤축에도 사용하는 말이라 한다. ‘디치기’ 어형은 ‘뒤축 + -이’의 |모음 역행동화가 실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망태는 앞서 농사용품에서도 관련 어휘를 정리하였는데, 조사 범주에 따라 농사용품, 생활용품으로 따로 정리하였다. ‘신골망태’는 신골을 담아 보관하는 그릇이다. 신골은 신을 만드는 데 쓰는 골¹⁷⁾이다. 신골은 보통 나무를 깎아서 만들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망태를 따로 만들어 두었다. ‘태기망태’는 산삼을 담은 망태로 심마니들이 사용하는 은어라고 한다. 밥을 싸다니는 데 쓰이는 망태이다. 지금의 도시락과 같은 개념이다. ‘밥 + 망태(기)’의 합성어형이다. 이 외에도 무엇을 담는지, [용도]에 따라 ‘돌망태’, ‘뽕망태’, ‘개똥망태’ 등으로 부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씨앗망태/씨망태/종자망태기’와 같은 구조로 볼 수 있다. ‘장망태’라는 어휘도 조사되었는데 장보러 갈 때 매고 다니는 망태로,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붙여 [용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재미있는 어휘 중 ‘불알망태, 붕알망태’, ‘술망태’라는 어휘가 기타 어형으로 조사되었는데 ‘불알망태/붕알망태’는 ‘불알/붕알 + 망태’형의 어휘로 ‘불알’은 ‘고환’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망태’와 합성어형으로 사용해 ‘고환, 음낭’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술망태’는 ‘술 + 망태’의 어형으로 ‘술고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더불어 ‘고주망태’라는 어휘도 함께 떠올릴 수 있다. 이들 어휘는 실제 짚 용품은 아니지만 ‘망태’에서 확장된 관용표현이다.

<표 3>은 농사용품과 생활용품에서 수집한 망태 관련 어휘의 분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17) 물건을 만들 때 일정한 모양을 잡거나, 뒤틀린 모양을 바로잡는 데 쓰는 틀(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표 3〉

상위범주	1차 하위어	2차 하위어
농사용품, 생활용품	망태기/ 망태	태기망태, 돌망태, 꿩망태, 개똥망태, 신골망태, 밥망태
		장망태
		홀치기망태
		불알망태/봉알망태, 술망태, 고주망태

그 밖에 짚신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신골망치/신빵메이, 신총꼬쟁이/총대꽃이가 조사되었는데 이들 어형은 ‘신골 + 망치, 신빵메이(방망이의 경북방언형), 신 + 총 + 꼬쟁이(꼬챙이의 경북방언형), 총 + 대 + 꽃 + -이’ 합성어형으로 볼 수 있다.

보관·이동 생활 용품 관련 어휘로는 기랄통/닭알통, 둥구매기, 소구리, 연장꽃이 등이 지역 생활어휘로 조사되었다. ‘기랄통/닭알통’은 달걀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짚 용품이다. 벽이나 추녀, 서까래 따위에 걸 수 있도록 위쪽에 고리를 만든다. 이는 ‘기랄/닭알 + 통’의 합성어형으로 ‘기랄, 닭알’은 ‘계란, 달걀’의 경상방언형이다.

기타 조사 어휘에는 금줄, 도롱이, 구두신, 김치갓, 짚공 관련 생활어휘가 조사되었는데 짚으로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두신은 짚으로 둥글고 울을 깊게 결어 장화처럼 만든 신으로 일반적인 짚신과는 모양이 다른 짚으로 만든 신이다. 제보자들도 만들어 신은 적은 있다고는 하나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조사 어휘인 ‘구두신’은 ‘구두 + 신’의 합성어형이나 현재에 사용하는 것은 의미와는 차이가 있었다.

‘금줄’은 ‘인줄’이라고도 하는데 벗짚 두 가닥을 성인남자의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로 윈 새끼줄을 꼬아서 여기에 다른 물건을 첨가시켜서 만든다. 금줄은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

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새끼줄을 매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장 담글 때, 잡병을 쫓고자 할 때, 신성 영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이 줄이 있는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였다. 이 금줄은 금기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법이었고, 짚을 이용하고 줄을 만들어 묶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도롱이’는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으로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도롱이’를 경북지역에서는 ‘도레이, 도레기, 도랭이, 도리, 도리이’라 하는데 조사 지역에서는 ‘도리이’형을 사용하였다. 도롱이 어형에서 모음이 교체, 어중 자음이 ‘-ŋ’이 탈락한 어형이다. 어중 자음 ‘-ŋ’이 탈락한 어형은 경북지역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점쟁이’를 ‘점재이’라 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짚을 엮어 갓처럼 만들어 땅에 묻은 김치독 위에 걸쳐두는 물건을 ‘김치갓’이라 한다. ‘짐치¹⁸⁾’는 ‘김치’의 경상방언형으로 구개음화가 실현된 예로 ‘짐치 + 갓’의 합성어이다.

짚은 아이들의 놀이 용품으로 활용하였는데 짚을 엮어 돌레를 감싸 공



[그림 7] 짐치갓



[그림 8] 짚공

18) ‘김치’의 구개음화 실현형인 ‘짐치’는 17세기 문헌자료에서부터 나타난다. 종돌 흙 의 출화 오라 호소 나박짐치 만히 드마 보내소 <16XX현풍곽>, 구은 밤 무우 쉼 무우 외짐치 연흔 흰밥 춤습죽 <1711두창경, 13a>.

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놀았다. 이는 구의 모양이라기보다는 타원형으로 수명이 길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유용한 놀이도구였다고 한다.

생활용품과 관련된 어휘는 1음절에서 5음절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조사 어휘는 모두 고유어 형태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래는 어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조사 어휘를 조어 구성에 따라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가) 단일어: 갱기, 디치기, 둥구매기, 소구리, 도리이

나) 합성어: 짚신, 앞갱기, 뒷갱기, 앞총, 돌개총, 눈갱기, 신총대, 신골망태, 신골망치, 신빵매이, 신총꼬쟁이, 총대꽃이, 닭알통, 기랄통, 연장꽃이, 금구줄, 구두신, 짐치갓, 짚공

다) 파생어: 짚시개, 짚시기

수집 어형에는 합성어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모두 종속합성어 유형으로 앞에 위치한 단어가 뒤의 단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합성어형 중 앞에 위치한 수식어는 명사형으로 해당 용품의 [용도], [위치],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수식어와 피수식어에는 지역의 방언어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수집된 합성어의 구성은 모두 핵어를 포함한 내심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2.5. 용품 만들기 관련 어휘

2.5.1. 조사 어형

짚으로 용품을 만들 때 부분 명칭이나 만들기와 관련된 어휘가 공통적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를 정리하였다.

가) 용품 만들기 관련 어휘

- ① 수집 어형: 기باط하다(짚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끝맺는다)
- ② 짜다(실이나 끈 따위를 씨와 날로 곁어서 천 따위를 만들다)
- 수집 어형: 짜다
- ③ 짚 넣다(짚으로 물건을 만들 때, 짚을 조금씩 더해 가는 일)
- 수집 어형: 짚 넣다
- ④ 수집 어형: 수시질하다(짚으로 만든 물건을 다듬다)

나) 기타 어휘

- ① 수집 어형: 니날배기(짚으로 물건을 만들 때 날을 네 개로 한 것)
- ② 수집 어형: 나발(물건의 입구 부분)

2.5.2. 어형 분석

‘기باط’은 짚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끝맺는다는 의미로 보통 ‘기باط하다’의 형태로 쓰인다. 표준어로는 ‘마무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짚으로 물건을 만들 때, 새끼를 엮어 기초를 만들어 놓은 행위를 ‘짜다’라고 한다. 이는 ‘실이나 끈 따위를 씨와 날로 곁어서 천 따위를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로 짚신의 틀을 만드는 것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틀을 만들고 짚을 추가해 점점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짚을 추가하는 것을 ‘짚 넣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넣다’는 ‘넣다’의 경상도 방언이다. ‘수세질’은 짚으로 만든 물건을 다듬는 일을 말하는데



[그림 9] 짜기



[그림 10] 짚신삼기-니날배기

‘수세질하다’로 표현한다. 칼이나 가위로 빠져나온 부분을 자르거나 불로 태워 없애 모양을 정리하거나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다듬는 것을 말한다.

짚으로 물건을 만들 때 날을 네 개로 한 것이다. ‘니날’은 ‘네날’의 경상방언이다. 보통 짚신은 날을 네 개로 하고, 미투리를 삼을 때는 여섯 개로 한다. 여섯 개의 날로 만드는 미투리를 ‘육날미투리’라 한다.

4. 결론

이상으로 조사 어휘를 중심으로 경북 상주지역의 짚과 관련된 생활어휘를 살펴보았다. 관련 조사는 문헌조사, 1·2차 현장조사, 보충조사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 범주를 문지로 작성하고,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통해 밀착조사를 실시하였다. 어휘 조사뿐 아니라 해당어휘의 음성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함께 조사하여 DB구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를 통해 짚 생활어휘에 관련된 145개 어휘자료, 제보자 강재희 씨의 생애구술, 어휘 수집파일, 음성파일 분절 파일 등 녹음자료, 생애구술과 어휘 수집파일의 전자자료, 짚 생활용품, 도구, 제작과정 등의 사진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145개의 어휘자료 중 73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도 있었다. 또한 짚 관련 어휘를 포함한 관용표현이나 속담 표현도 수집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조사 어휘 중 상위 명칭 짚 관련 어휘, 농사용품, 사육용품, 생활용품 등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였다. 논의한 어휘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조사된 상주지역의 짚 생활어휘는 상위 명칭과 함께 관련된 하위 명칭의 어휘도 함께 수집할 수 있었으며, 어휘의 활용도에 따라 어휘장의 범위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사용품에서는 농산물 보관·이

〈표 4〉

상위 범주	조사어형
상위 명칭 짚 관련 어휘	짚/집/지푸라기, 지푸라기/지푸래이/짚불, 짚쑤세, 짚바, 짚모개 미, 짚패기, 짚호깨이, 새개이, 새기때이, 짚내끼
농업용품	가마이, 가망이, 가마이때기, 가망이때기, 짚가망, 쌀가마이, 소 금가마이, 솟가마이, 섬, 쌀섬, 솟섬, 오쟁이, 오장치, 씨오쟁이, 종자오쟁이, 두꾸마리/두루미, 옹구, 걸옹구, 명옹구, 걸채, 두 엄걸채, 철거리/철기이, 철거리낭기, 철거리끈/철기이끈, 쌀방 석, 덕석/덕식이, 망태기/망태, 씨앗망태/씨망태, 풀망태/꼴망태 /깔망태, 종자두루미, 두루미병, 나락디주, 나락두지, 나락뒤지, 허사비, 허세비, 허세, 목사리/멕사리, 윗목사리, 아랫목사리, 목 덜개, 목다기, 목걸이, 턱걸이, 소방석, 뜸, 속방석, 배채, 복디, 소 명, 소어닝기, 질매어치, 마구주름, 달구통, 빌가리통, 별통덜개
생활용품	짚신/짚시개/짚시기, 갱기, 앞갱기, 뒷갱기, 앞총/총대/신총대, 눈갱기/둘개총, 뒤치기, 신골망태, 밥망태, 태기망태, 돌망태, 평 망태, 개똥망태, 장망태, 훌치기망태, 불알망태/붕알망태, 술망태, 고주망태, 신골망치/신땡메이, 신총꼬쟁이/총대꽃이, 구두신, 금 구줄, 기랄통/닭알통, 도리이, 둥구매기, 소구리, 연장꽃이, 짐치 갓, 짚공
기타	기밥하다, 짜다, 짚엿다, 수세질하다, 나발, 니날배기

동과 관련된 어휘, 사육용품에서는 소와 관련된 어휘, 생활용품에서는 짚신과 관련된 어휘가 어휘 분화가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수집어휘는 1음절에서 5음절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위 범주의 어형으로 갈수록 단어의 합성, 파생으로 어형의 길이가 길어졌다. 또한 어종으로는 고유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어종 특성인 고유어의 비중이 한자어, 외래어 등에 비해 낮은 것에 비해 지역의 생활어휘는 다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집어형을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단어유형을 분류하면 합성어형이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합성어를 의미 관계로 파악하였을 때 수식어 + 피수식어 구조인 종속합성어가 대부분이며, 합성어형의 구성은 핵어를 포함하고 있는 내심적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수식어는 명사 형태로 짚 용품의 [용도], [위치], [모양] 등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짚 생활어휘에 관한 본 조사가 경상북도 성주지역에 한정된 조사로 타 지역의 짚 관련 어휘와의 비교·대조를 하지 못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실제 사용하는 어휘를 수집, 정리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조사라 여긴다. 농업활동의 부산물인 ‘짚’을 이용한 관련 생활어휘 연구는 우리말의 외연을 넓히고, 전통 농경문화, 생활문화와 관련된 어휘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홍기옥(2007),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한국문화상징사전 1·2.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한민족언어정보화 검색 프로그램.

【논 저】

국립민속박물관(1991), 『한국 짚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김계순(2003), 『짚신』, 정은문화사.
인병선(1995), 『짚문화』, 대원사.
임지룡(2002), 「현대 국어 어휘의 사용 실태와 조어론적 특성」, 『배달말』 30, pp. 41-67.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원.
최덕원(1994),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원고 접수일: 2019년 10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1월 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7일

ABSTRACT

A Study on the Living Vocabulary Concerning ‘Straw’
of the Seongju Region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Hong, Gi-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nd organize the living vocabulary related to straw through field surveys,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vocabulary related to straw in order to build a DB of related vocabulary. This arrangement of straw living vocabulary will provide the basic work upon which a vocabulary related to Korean agricultural culture and living culture will be constr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vocabulary related to straw in the Seongju Region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reporters who were indigenous to the region and who had been doing straw craft activities to date were selected.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literature survey, field survey, and supplementary survey. In addition to vocabulary, if possible, voice data, photographic data, and video data of the vocabulary were examined together to collect data for DB construction.

The category of straw living vocabulary survey was presented as ‘Agricultural Supplies, Breeding Supplies, Household Items, Housing Items, Event Items’. The subdivisions were divided into concepts, drying,

* Visiting Professor, Faculty of Self-Designed Major, Uiduk University

tools, feeding, storage, transport, clothing, gentile, materials, sowing, play, and partial names. Through investigation 145 vocabulary materials, life dictation, sound recordings, photographs, and a video could be obtained.